

###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0(土)	11(日)
비/눈 후덥 3/11℃	구름조금 -1/7℃

#### News

- 자기부상열차 유치경쟁 ②
- '과확성' 받은 양지숙양 ③
- 앤서니 김 첫날 공동2위 ⑩



#### Jeollado

- 그사람-이기흥 변호사 ⑦

#### Entertainment

- 軍제대 스타들 TV 복귀 ⑧
- 한국영화 키워드 '아버지' ⑨

####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냉이 ⑬



우일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m.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광주시 남구청과 동신대 광주한방병원의 '찾아가는 한방봉사단' 진료팀이 지난달 27일 남구 대촌동 승촌경로당 노인들에게 무료 한방진료를 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대촌동 노인들은 참 좋겠네

‘찾아가는 의료봉사료 효(孝)를 실천한다.’  
‘효사랑 실천’을 구정의 캐치 프레이즈로 내건 광주시 남구청의 찾아가는 한방진료 사업이 노인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도시 속 농촌지역인 광주시 남구 대촌동 노인들은 전담 한의사를 두고 있다. 동신대 한방병원 의사와 남구청 보건소 직원들이 매달 두차례씩 대촌동 지역을 찾았기 때문이다.

남구청과 동신대 광주한방병원은 지난 2005년부터 농촌지역인 대촌동의 36개 경로당 6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6070 은빛건강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지난달 27일 대촌동 신장경로당에 50여명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모여 들었다.

몸체 풀지 않는 기침을 호소하는 할머니, 허리 결린 데 부침 한방 파스가 필요한 할아버지, 여겨 통증으로 아파하는 할아버지 등이었다. 노환에 시달리면서도 시내 병원을 찾아가 여의치 않은 노인들은 정해진 날짜에 찾아와주는 한의사와 보건소 직원들을 자식을 맞듯이 따뜻하게 대했다.

특히 할머니·할아버지들은 양방보다 한방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의사가 손목만 잡아도 금세 얼굴이 편안해졌다.

경로당 노인을 상담수는 혼자 살고 있어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고 참는 경우가 태반이다. 보건소와 한방병원의 찾아가는 의료봉사단은 노인들의 불편을 고려, 직접 방문해 진료해줄 뿐만 아니라 침이나 뜸 등 노인들이 좋아하는 치료를 해주고 있다.

도시지역 지자체가 한방병원과 연계해 특정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무료 한방 방문 진료를 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병원은 진료 의사를, 보건소는 의약품 등 예산 관련 부분을 각각 책임지고 있다.

찾아가는 한방봉사단은 매월 두차례 대촌 지역 경로당을 찾아 4시간 가량 활동하며, 한번 찾은 경로당은 치료의 효과를 위해 4차례 연속 방문한다.

또 경로당 수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경로당에서 인근 경로당의 노인들까지 한꺼번에 진료한다.

동신대 한방병원 의사 정민영(여·레지던트 1년차)씨는 “한의사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진료하기 때문에 4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면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진료와 치료 효과도 크고, 손녀 같이 대해주는 할머니들의 정을 느낄 수 있어 피곤한 줄도 모른다”고 말했다.

황일봉 남구청장은 “고령 인구가 많고,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지역 노인들의 건강과 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 대촌동 신장경로당 류홍순(여·62) 회장은 “농촌 노인들은 아파도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한다”면서 “자식처럼 돌봐주는 한의사와 보건소 직원들에게 그저 고맙고 미안할 뿐이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남구청 보건소·동신대 한방병원

경로당 돌며 月 2회 600명 무료 검진

농촌 정기방문 한방 진료 '전국 최초'

## 새 총리 한덕수씨



〈한덕수 총리〉

靑 비서실장 문재인  
경호실장 염상국



〈문재인 실장〉



〈염상국 실장〉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새 국무총리에 한덕수(58) 전 경제부총리를 지명하고, 새 청와대 비서실장에 문재인(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했다고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프로필 2면〉

노 대통령은 또 사의를 표명한 김세욱 청와대 경호실장 후임에 염상국(50) 경호실 차장을 승진, 기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엔 물러나는 이병완(53) 비서실장을 대통령 정무특보에 기용키로 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한덕수 총리 지명자와 노 대통령의 측근인 문재인 실장의 중용은 임기 말 국정을 안정적으로 끝내기 위한 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으로 여당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

에서 국정 운영의 두 축인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박남춘 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 총리 지명자 인선 배경과 관련, “주요 경제부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경제관료 출신으로, 풍부한 국정운영의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임기 마지막 해의 경제운영과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비서실장 내정에 대해 박 수석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회정의에 대한 남다른 소신 및 신념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를 마무리해야 하는 대통령을 잘 보좌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한·미 FTA협상 '금물살'

경쟁분과 타결 이어 통상분과도 합의 접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8차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 협상이 금물살을 타고 있다. 양국은 지난 8일 동의를 명명제 도입에 합의하는 등 경쟁분과에서 모든 쟁점을 완전 타결지었다. 전체 19개 분과 중 처음으로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와 함께 통상분과도 사실상 타협점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는 9일 “(동의 명령제를 위한) 입법 관련 사항은 부처간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이 줄고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쟁 분과는 핵심 쟁점 분과는 아니지만 협상대상 쟁점을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을 겪다 유보됐던 동의명명제 도입에 양국이 합의함으로써 한미 FTA로 국내법 개정의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김 수석대표는 통관 분과도 양국 간 물품 통관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통관협력소위 설치, 수입자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명제도 등에 합의해 8차 협상기간 내에 최종 타결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다채로운 무한재능 개성있는  
새로운 첨단보청기 기술에 도전하라

#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세기스타·세기보청기